

강화군, 연안 어장에 조피볼락

61만 마리 추가 방류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10월 30일, 고갈 위기에 놓인 연안 어장의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지역 특산 어종을 육성하기 위해 조피볼락 종자 61만 마리를 주문도 납단 해역에 추가 방류했다.

강화군은 올해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해 단계적으로 수산 종자를 방류해 왔다.

지난 5월 접농어 종자 42만 마리를 시작으로, 8월에 조피볼락 61만 마리를 주문도 해역에 방류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방류로 총 164만 마리의 수산 종자가 방류됐다.

조피볼락은 한반도 전 연안에 서식하며, '우럭'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어종이다.

회와 매운탕 등으로 수요가 높지만, 환경 변화와 남획으로 개체수가 감소해 자원 보존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군은 연안어장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해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자를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자원을 증강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앞으로도 부가가치가 높고 건강한 종자를 방류해 풍요로운 바다를 가꾸고, 수산자원 조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지역 어업인의 실질적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웅진군, 민·관·군 합동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웅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30일, 영흥면 웅진국민체육센터에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황리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규모 복합재난 상황에서 초동 대응 능력과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웅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협업기능부서를 비롯해 유관기관, 민간단체, 군부대, 주민 등이 참여해 현장감 있는 실전 훈련으로 진행됐다.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대형 건물 화재 발생과 붕괴 등 복합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 출동 가능한 자원과 인력을 투입,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진행했다.

특히 현장에서 동시에 이뤄진 주민대피 유도,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유관기관 협업하에 구조·진화작전 등은 재난 대응 전 과정에 대한 실행 점검과 역량 강화를 가능하게 했다.

웅진군은 이번 훈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4차례 사전 기획회의를 개최하고 2차례의 전문가 컨설팅과 이틀간의 리허설을 통해 훈련계획을 구체화하고 전 부서가 실제 재난에 대응하듯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훈련 전 준비를 철저히 이행했다.

문경복 웅진군수는 "훈련은 끝났지만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에 준비는 끝이 없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대응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구축하고, 모든 행정의 중심에 군민 안전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심하린 기자

‘2025 인천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성황리 개최

250여 명 참석, 우수사례 발표 및 축하공연으로 다채로운 행사 펼쳐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월 31일 송도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2025 인천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를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추진된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과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향후 활동의 지속성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천시와 군·구 마을공동체, 마을활동가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성과를 공유하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올해 시·군·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수행 단계 중 서류심사 상위 5개 공동체가 무대에 올라 마을공동체 활동 사례를 발표했으며 최종상을 수상한 팀에게는 2026년도 마을공동체 자율형 사업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로 지원하게 된다.

심사 결과 대상은 피플앤이 차지했으며 이어 최우수상은 화수정원마을주민협의체, 우수상은 탄소중립마을을 넘어 사회협동조합, 인천역사문화단, 개항로삼동이 3위, 장려상은 4위 등 총 9개 공동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진 축하공연에서는 2025년 지원사업을 수행한 마을공동체들이 공연을 준비해 행사에 활기를 더하는 등 단순히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그치지 않고,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성과를 나누고 교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마을공동체 활동은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성과공유회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성과공유회를 기점으로 앞으로도 공동체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시민 참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와 10월 31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제20회 임산부의 날(10.10.)을 기념해 「사랑 태교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산부의 날”은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날로 매년 10월 10일이다.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숫자 ‘10’을 결합한 의미로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이번 「사랑 태교음악회」에서는 ‘아이&i 임산부 합창단’과 ‘i-신포니 에타’가 함께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선율로 임산부와 가족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다. 또한 기념행사에서 문수연 참총은마음연구소 소장이 ‘내 아이는 정서적 금수저’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해, 아기의 울음과 감정을 부모가 공감하며 아이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감정코칭 대화법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심하린 기자

남동구,생물테러 대응 대비 소규모 모의훈련

남동구 보건소는 최근 보건소 회의실에서 ‘2025년 생물테러 대응 대비 소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신속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인천소방 화학대응팀, 남동소방서, 공단소방서, 남동경찰서, 논현경찰서 등이 참여했다.

훈련은 LEVEL A·C 개인보호구 착용의 실습, 생물테러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 교육, 신규 개발된 2025년 생물테

러 대응 시나리오에 따른 현장 대응 모의훈련 등이 진행됐다. 또한, 생물테러 감염병의 특성과 개인보호구 종류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특히, 보건소 역학조사관이 직접 교육을 진행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남동구 관계자는 “훈련을 통해 생물테러 발생 시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훈련을 지속해서 실시해 주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동구, 10월 소통·공감의 날 행사 개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30일 동구청에서 직원 간 소통·공감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월례 조화를 대신한 ‘소통·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베스트셀러 ‘방구석 미술관’ 시리즈의 저자인 조원재 작가가 참여한 전문가 특강, 5인조 재즈 밴드

‘문스톤 밴드’와 함께하는 퇴근길 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조원재 작가의 강연을 통해 직원들은 예술작품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을 배우며, 개인의 삶과 가짐, 나아가 동구의 미래를 한층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뜻깊은 계기를 마련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한 해 동안 다양한 행사 준비와 참여로 노력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남은 2025년 계획을 성실히 마무리하길 바란다”며 “모든 부서와 직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협력해 다가오는 제물포구 출범에 희망찬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서구, 드론 영상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전국 최초로 인천광역시에서 주최한 ‘드론 영상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드론 영상 경진대회’는 공무원 및 유관기관 13팀(38명)이 출전하였고, 제한시간 내에 강화군 길상면 동검도 일원을 드론으로 촬영한 후 영상을 제작하여 평가하였다.

서구는 최근 인천광역시 드론 측량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전국 최초로 열린 ‘드론

영상 경진대회’에서는 공간정보를 주제로 자 연경관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영상미, 창의성, 완성도 및 주제 적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인천 최고의 드론 활용을 선도하는 기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또한 최우수팀으로 선정된 서구팀 출품 영상은 인천광역시 누리집과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사업’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다.

강범석 구청장은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측량 기술력 확보에서 나아가 정확하고 완성도 있는 영상 제작 능력까지 겸비하도록 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 협력방안 논의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30일 ‘유·어·초 이음교육 간담회’를 열고, 2025년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기관 및 어·초 이음교육 시범기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간 교육과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이음교육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유아의 초등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협력 사례를 공

유했다.

간담회에서는 교육부 유·초 이음교육 컨설팅 자료 개발에 참여한 경기 마장초등학교 김나영 교사가 ‘이음교육의 이해 및 현장 적용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이음교육의 필요성과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소통의 시간에는 교직원들이 현장의 어려움과 성과,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뿐 아니라 초등학교 교직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초등학교교로의 원활한 전이와 적응 지원을 위한 이음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하린 기자

우리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김선준, 진혜진

의회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